

정간공

약포

정탁



글·그림 강손·임장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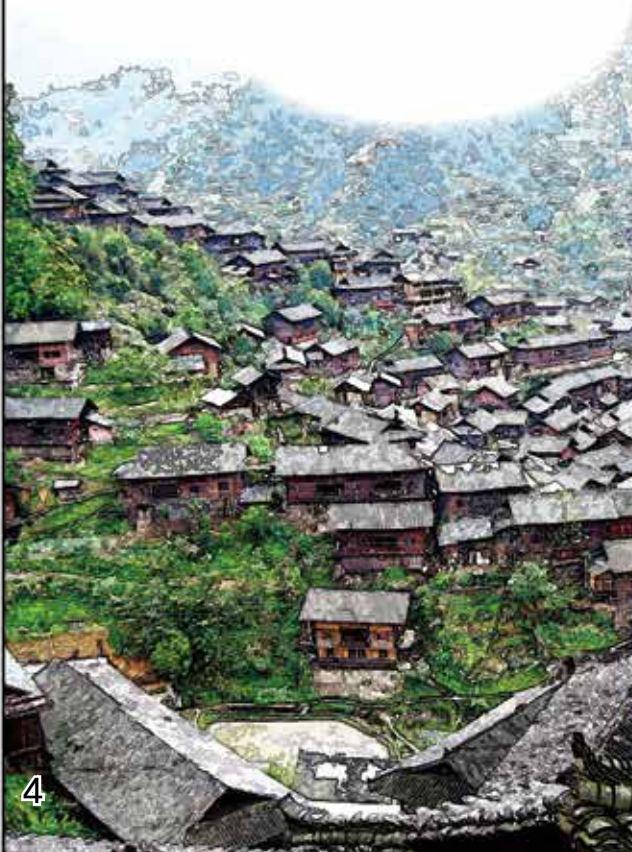
예전문화원 특별기획작품

경상북도 북부에 위치한
예천군은 삼국시대 수주촌,
통일신라시대 수주군으로
불리던 고장입니다.



하지만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 부터
예천군으로 개명하면서
예천은 역사에 처음
등장합니다.

원래 예천이 고을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던
곳은 중국의 섬서성 예천현입니다.



명나라 송정제(崇禎帝, 1627~1644) 년간에
지은 《예천현지》에 따르면 한나라 선제(宣帝,
BCE74~ BCE48년)가 이곳에 궁(宮)을
지을 때 샘물이 솟아났는데



뭐야?

웬 물?

짜아~



오잉?
물맛이 단술 맛이네?

단술 같은 향도
나는데요?

그 맛이 단술과 같은 향기 즉, 주향(酒香)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궁의 이름을 예천궁(醴泉宮)이라고 한 데서 비롯하여 예천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공자는 <<예기(禮記)>>
제9편 <예운>에서 예천을
天降甘露 地出醴泉
천강감로 지출예천
이라 말합니다.

‘하늘은 감로수를 내리고
땅은 단 샘물을 낸다.’ 는
것입니다.

*주 예기(禮記)는 고대 중국의 경전인 오경(五經)의 하나로 예법 등이 기록된 책입니다.
공자와 그의 후학들이 지은 책을 여러 대를 거치며 49편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또한 상서로운 짐승 중 하나인
‘봉황(鳳凰)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으며, 예천(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 는
<<장자(莊子)>> <추수>편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예천을 산수와 물맛이 좋은 예향의 고장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무신년(1548. 명종3) 가을.
물맛 좋은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 마을에 경사가 났습니다.

용성~

용성~



용성~

효자로 칭송받는 관물당(觀物堂) 반충(潘冲)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시집을 간답니다.

용성~



신부
출(出)~

와글

와글



신랑 신부~
맞절~

와자

지껄



신부가 너무 예쁘다!

♪~



신랑도 얼굴은
환한데 키가 좀.

가난한
서생이래~

한데.. 반충의 아내는



명문가면
될 하나.



왜소한 체구에
가난하기 짝이
없는 서생이라니~



허허허~
나를
믿으시게



두고보게나 정서방은
앞으로 큰일을 할 인재(人才)일세.



*주 반충(潘冲) : 1508~1584. 본관은 거제(巨濟), 자는 중화(仲和), 호는 관물당(觀物堂)이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지극한 효성으로 모친을 섬겼다.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시묘살이를 하면서 3년 동안 죽만 먹었으며,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다. 1651년(효종2)에 효자정려(孝子旌閭)가 내려졌다. 용궁면 덕계리에 반충 충효각이 있다.



영감 말씀 듣고
승낙은 하였지만,

딸아이 앞날이
걱정입니다.

어허험!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에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주야장천 공자알~ 맹자알~
글만 읽어달 터이니~



키는 좀 작고 가난한
서생이지만 눈빛과 얼굴을
좀 보세요.

환하게
빛이 나지 않소이까.

정 탁(鄭琢) :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자정(子精), 호는 약포(藥圃) · 백곡(栢谷),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정간공 약포 정탁

만든사람들

발행인 | 권창용

시나리오 그림 연출 | 강촌 임이록

그림 컴퓨터그래픽 | 임장석 화백

제작 편집 | (주)한국만화영상아카데미

자료 제공 | 예천문화원, 정간공약포정탁기념사업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감수 | 예천문화원, 정간공약포정탁기념사업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교정 | 책임교정 : 조윤, 교정위원 : 이재완, 허선미, 김상진

제작 지원 | 경상북도·예천군

기획 발행 | 예천문화원





정탁은 중종 21년(1526) 10월 8일 인시(寅時)에, 용문면 하금곡 삼구동에서 정이충(鄭以忠)과 평산 한씨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님,
아이 울음소리가
이리도 우렁찬 건
처음 들어요.

우리 가문을 다시
일시켜 세우는 훌륭한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네.



꼭
그리되실 거예요.



태몽대로 되었으면
좋으련만...

어머니는 진사 한종걸(韓從傑)의 딸로,
태양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꿈을
꾸고 정탁을 낳았다고 합니다.



정탁은 태어나면서부터
외모가 남달랐습니다.

정탁은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자질이 빼어나
아버지 정의충이 매우 사랑했답니다.

하늘 천, 땅 지,
검을 현, 누를 황
(天地玄黃).

집 우, 집 주,
넓을 홍, 거칠 황
(宇宙洪荒).

나는 천자문
외우는 게 잘
안돼.

나도 그래.

나는 헛갈려.

♪

무조건 외우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의 뜻을 생각하며
읽으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어.



*주) 의정공(議政公): 정이충(鄭以忠, 1502~1546). 자는 신중(信仲)이다.
정원로(鄭元老)의 손자이고, 아들 정탁의 귀함으로 인해 훗날 영의정에 추증된다.

정탁은 나이 8세에 이르러
옳고 그름을 알았고,

으음!



배움이 커질수록
생각이 깊어져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으음!
장차 정승 감이로다.



그러나...

어머니 아~

정탁을 그리도 예뻐하며
살뜰히 챙겨주시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던 어머니를 잃은
어린 정탁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후~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미를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탁아!




아! 아버님.

나랑 안동 할머니
댁에 가서 살까?



정말요?
와~ 신난다.

안동 할머니도
좋아하실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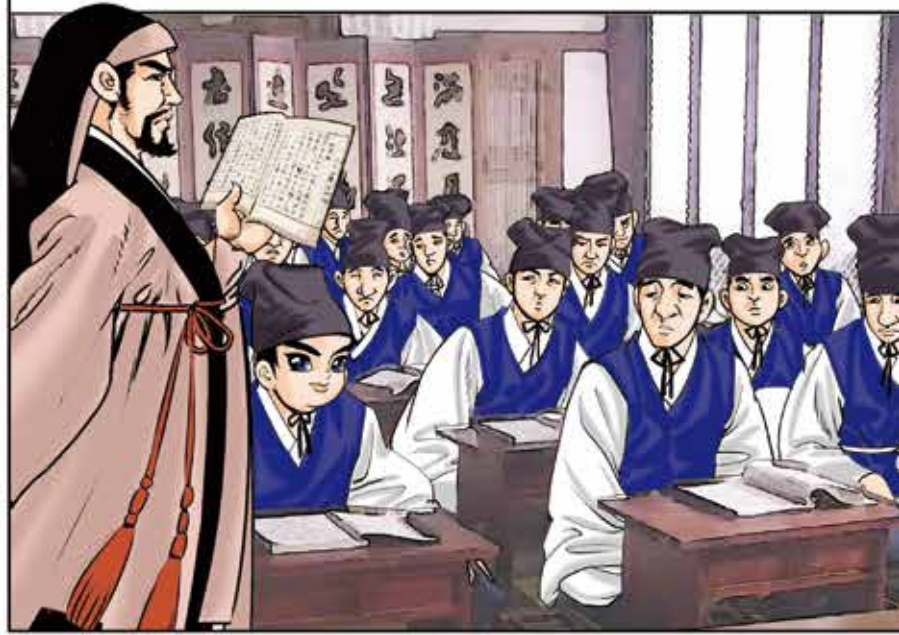
얼마나
외로웠으면...

병신년(1536, 중종31)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정탁은 아버지의 고향 안동 가구촌(佳丘村)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정탁은 삼가현감(三嘉縣監)을 지낸 중부(仲父)
정이흥(鄭以興)에게 수학하였는데,

겨우 15세의 나이에 경서(經書)를 통달하였고, 주자(朱子)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등의 책을 두루 읽었습니다.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주자는 춘추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큰 제목으로 강(綱)을 따로
세우고



기사는 목(目)으로
구별하여 엮은 것이
특징인데요.

후학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엮었다는 것입니다.

허허허~ 그래,
이제는 퇴계 선생께 너를
보내도 될 것 같구나.



네? 그럼 제가
성리학의 대가이신
이황 선생님 제자가
되는 건가요?

♪

임인년(1542, 중종37) 정탁은 17세의 나이에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게 됩니다.



스승님께
인사 올립니다.



퇴계의 문하에 들어간 정탁은 심학(心學)의 요체를 터득하고, 실천하는 학문에 중점을 두어 구이지학(口耳之學)을 일삼지 않았습니다.



으음!
소문대로 범상치
않은 관상이로다!



*주) 구이지학: 귀로 들은 것을 깊이 새겨 보지 않고 그대로 입으로 남에게 전하는 천박한 학문을 뜻하는 말로, 《순자》 권학(勸學)의 “소인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 귀로 들어왔다가 곧장 입으로 나가고 만다. [小人之學也 入乎耳出乎口]”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21

학문이 일취월장한 정탁은 20세가 되자 아버지를 따라 다시 외가인 예천 금당실(金堂谷)로 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버지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정자나무와도 같았던 아버지께서 정탁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흑 흑~
아버님마저 떠나시면
저희는 누굴 의지합니까?

아버지를 외가의 선영(先塋)인
못골[堤洞]에 장사지낸 후,

휘이잉~



예법을 지키며 3년 동안 정성껏
시묘살이를 하였습니다.

휘이잉~



서방님,
첫날 밤에 무슨 생각을
그리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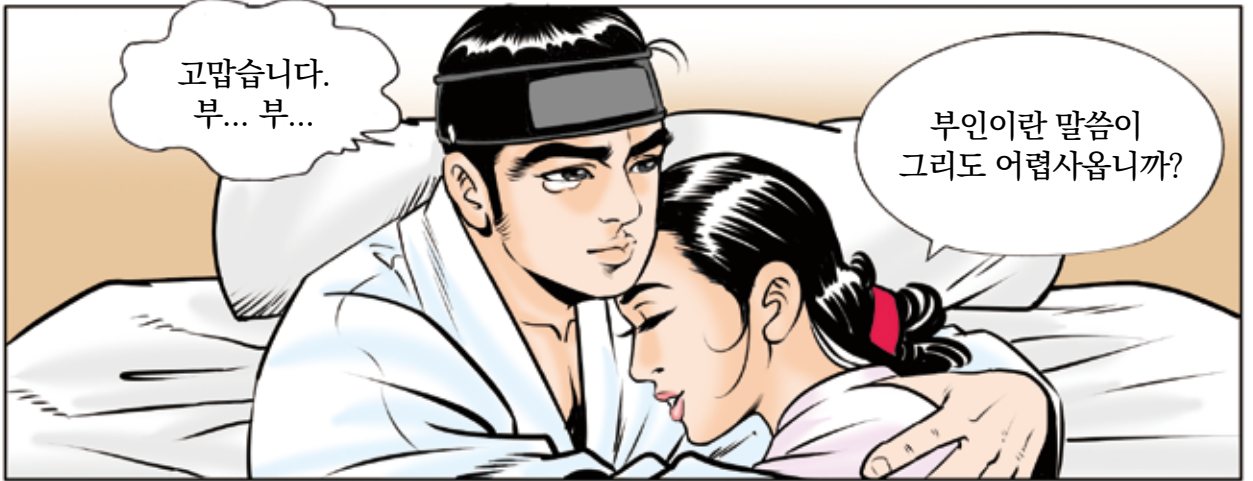


아~ 잠시 부모님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며느리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지요.



서방님~
제가 서방님 외롭지
않도록 잘할게요.



고맙습니다.
부... 부...

부인이란 말씀이
그리도 어렵사옵니까?



부인!!

네~
서방니~임.

몇 해가 훌쩍 가버렸습니다.





이번 봄에는
꼭 과거를 보시도록
해야겠어.





시집을 때 가져온
반지와 띠 머리를
팔았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노자로 쓰세요.



아니!
머리카락을
잘랐단 말ियो?



머리카락은
금방 자라니
염려 마세요.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와서 고생만 하는
부인에게 면목이 없구려.



저는 서방님을 믿어요.
열심히 과거 준비를 하였는데
노자가 없어 몇 년을
미루셨잖아요.



더 늦기 전에
합격하셔서 큰 뜻을
펴셔야 합니다.

고맙소, 부인!
이번 시험에
최선을 다하리다.

덤썩!



임자년(1552, 명종7) 봄. 정탁은 나이 27세에 성균관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생원시에 합격했을 뿐이요.

천 리 길도 한걸음 부터라고 했어요.

서방님은 문과에도 꼭 급제하실 겁니다.



이리 주오. 내가 들겠소.

아니되었습니다

장차 정승이 되실 영감께서 팔래 바구니를 드시다니요.



정경부인께서 팔래 바구니를 머리에 이어서 되겠습니까?



성균관.



정탁은 그해 가을,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의 깊이를 더하며 하늘과 사람의 이치에 대해서도 연구하니 유생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답니다.

약포(정탁의 호)는 주역도 공부하고 있어.

흥 잡학이 과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 했던가요?! 무오년(1558, 명종13) 겨울, 정탁은 나이 33세에 과거시험을 치러 문과에 당당히 급제하였답니다.





기미년(1559. 명종14) 정탁은 교서관에 분속 되었습니다.



*주) 교서관(校書館) : 조선시대 경적(經籍)의 인쇄와 교정, 제사 때 쓰이는 향과 축문·인신(印信 : 도장) 등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당시 문과에 급제한 인재를 교서관에 분속 시키는 것은 좌천이라고 일컬었으나, 선생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장인(匠人)들의 일을 감독하고 오자를 교정하기를 한결같이 지극정성으로 하였답니다.



저 자는 좌천이나 다름없는 한직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큰 그릇이요.

뒷날에 반드시 대성할 인물입니다.

저 관원은 암룡[雌龍]의 용모를 지닌 기이한 사람으로 훗날 반드시 크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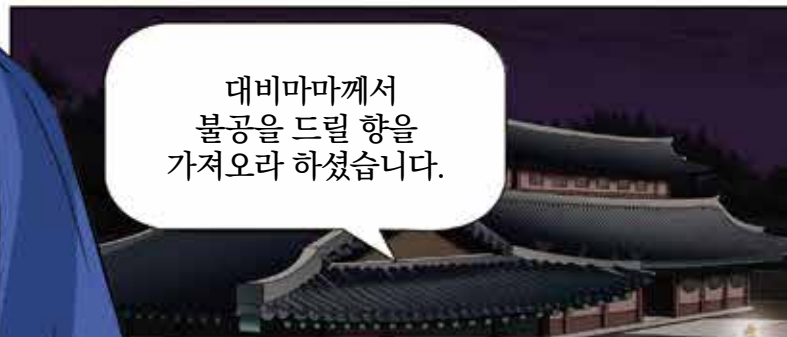
경신년(1560, 명종15)
정탁은 35세에
교서관 정자
(校書館正字)에
보임(補任)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대비마마께서
불공을 드릴 향을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교서관의 향은 종묘사직의
제사에 쓰는 것이지
불공을 드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법도를 어겨가며 궁 외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지엄하신 대비마마의
명이십니다.

무어라?
병약한 주상을 위해서
불전에 쓸 향을
줄 수 없다?

네~에
대비마마.


대체 교서관의
책임자가 누구인데
감히!!

※대비: 문정왕후
(명종의 어머니)




이번 문과에 합격한
정탁이란 자이옵니다.

교서관
정자 따위!
어디 두고 보자.



으음...
장차 정승이 될
인재로다.



권력의 힘은
민심을 교란하고
궁중의 질서를
어지럽히니

아 ~
장차 이것을
어찌 다 잡아갈꼬...

신유년(1561, 명종16) 정탁은 나이 36세에
성천향교(成川鄕校) 교수(敎授), 이후
진주향교(晉州鄕校) 교수(敎授)에 임명되었습니다.

진주에 근무하는 동안
남명(南冥) 조식(曹植)
선생을 만나 봐야겠다.



정탁은 그곳에서 평소 흠모하던 조식 선생을
만나 학문을 논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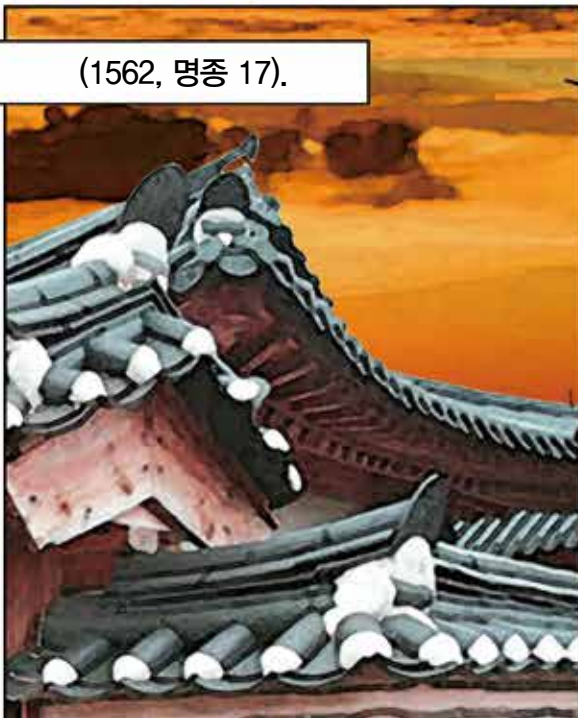
허허허~

그대는 학문 또한 매우
깊은데 내 어찌 그 깊이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과찬을 해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36세의 늦은 나이에 정탁은 큰아들 윤저(允著)를 얻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진실하고 올곧은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윤저(允著)라 지었습니다!



계해년(1563, 명종18) 여름. 정탁은 명례방(明禮坊 : 지금의 명동)에 집을 지어 이사합니다.



호호호~
우리 윤저가 벌써
뛰어다닙니다.

하하하~
어기적어기적 걷는 것도
부인 눈에는 뛰는 걸로
보이십니까?

꼬꼬댁~



배겨덕~



나리~ 오랜만에
뵙습니다요~

가만! 너는 안동
퇴계 선생님 댁
바우가 아니냐?

이 먼 길을
어찌 온 게야?

서찰을 주시면서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듣자 하니 남산 아래 아름다운 동산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아마 벼슬에서 물러나 소요(逍遙)하며
진세(塵世)의 피로를 풀려는 것이니 경하할 만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만 있지 않으니
학문하는 이유를 몰라서는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갑자년(1564, 명종19) 39세에 둘째
아들 윤위(允偉)가 태어났습니다.

까꿍

한편 을축년(1565, 명종20) 조정에서는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서거하자 잠시 주춤하던
당파의 주도권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마마마께서 돌아가신
후로 대신들은 온통 주도권
싸움이나 하고들 있으니...

사간원도 이들의
눈치나 보며 언론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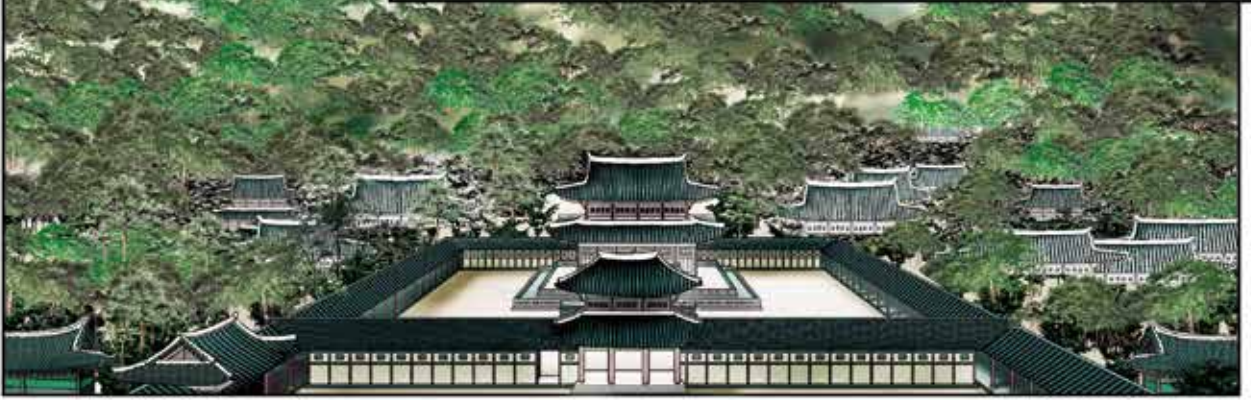
그래!!
이번에 성균관 전적으로
승진한 정탁을 사간원
정언에 제수한다면!!

*주) 제수(除授) : 천거나 절차 없이 왕이 바로 벼슬을 내림.

명종의 기대대로 정탁은 정도를 지키며 언관(言官)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윤원형(尹元衡)이 제멋대로 독단하여 나라를 그르치게 한 죄를 탄핵하였고, 계속해서 이감(李戡)·윤백원(尹百源)·심통원(沈通源) 등을 논핵 하니 조정이 정탁을 두려워하고 꺼렸습니다.

그 후, 정탁은 예조 정랑, 홍문관 부수찬, 병조 좌랑, 사간원 헌납, 사헌부 지평을 거쳐 다시 홍문관 수찬, 부교리, 교리가 되었습니다.



명종과 선조 두 임금을 모시고 나랏일을 보면서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격한 말로 임금을 자극하여 명예를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성의로써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켜, 임금 또한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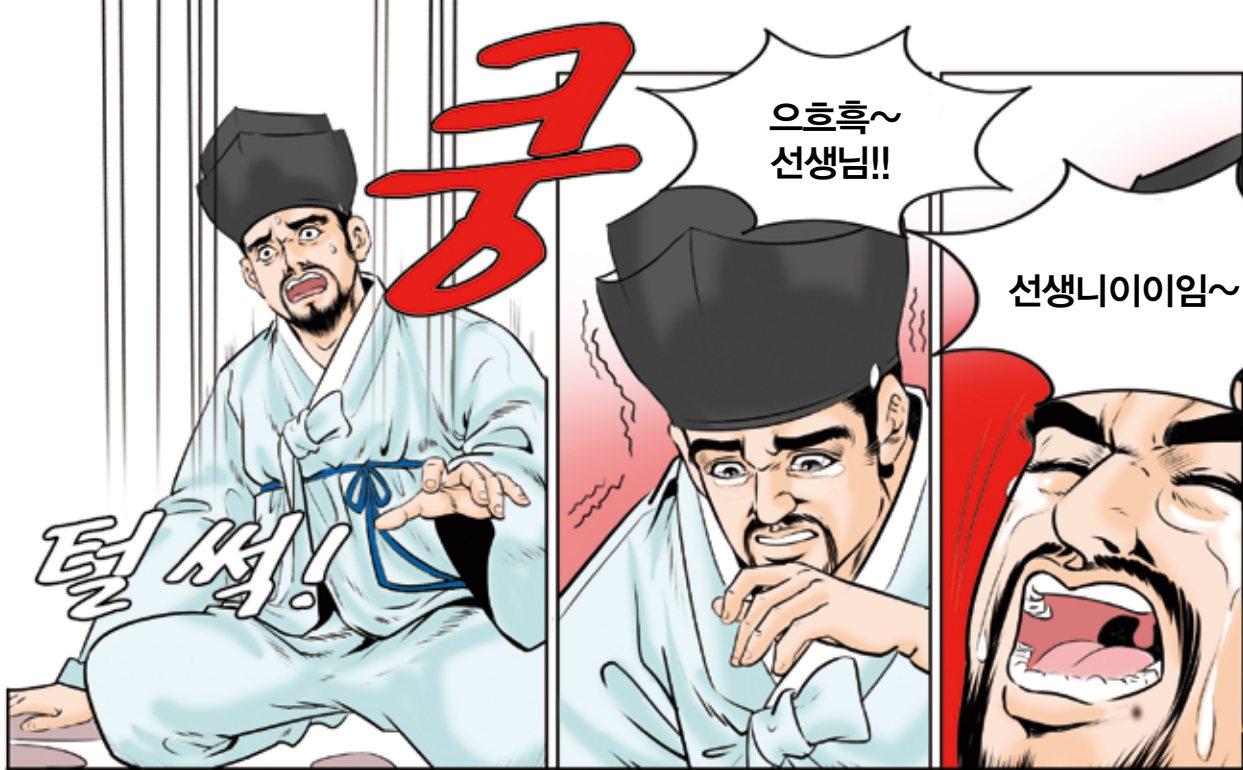
경오년(1570, 선조3) 12월.
정탁의 나이 45세.



뭐라
했느냐?

퇴계 선생께서
돌아가셨단
말이냐!!!

그렇습니다요.
흑흑.



자신에게 가장 엄했고 관대했던 스승 퇴계 이황 선생이 위대한 학문적 유산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너와~너와~너와 남자~ 너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실 날이나 일러 주오~

정탁은 선생의 신위(위패)를 설치하고 여러 동문들과 함께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의 관소(館所)에 모여 곡하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2월 26일 임금과 신하들이 참여하는 저녁 경연(經筵)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학식이 높은 선비가 세상을 떠났사운데,

전하께서 부고가 도착하던 날 퇴계 선생을 영의정에 추증하시자 이 나라 백성들이 감격하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의 학문은 동방의 종사(宗師)가 되며, 학문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동방에 학문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나, 학문의 깊이와 실천하는 마음이 한결같은 선비는 오직 이 한 사람뿐입니다.



그의 일생에서 나아감과 물러섬, 사양함과 받음은 모두 후인들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에게 병이 있다고 듣고서 특별히 명하여 어의를 보냈건만 미처 구제하지 못했으니, 슬픔과 한스러움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성은이 망극합니다. 전하!!

신미년(1571, 선조4) 봄, 46세의 늦은 나이에 셋째 아들 윤목(允穆)이 태어났습니다.



응아~

응아~



임자, 이번 스승님 추모행사[會葬]에 다녀올까 합니다.

그러셔야지요.



정탁은 3월에 퇴계 선생을 추모하는 모임에 참여하여 제문을 올립니다.



유세차(維歲次) 신미(辛未)
삼월(三月) 임술삭(壬戌朔)
십팔일(十八日)
기묘(己卯)에~

문인(門人) 정탁(鄭琢)이
삼가 술과 과일을 갖추어
퇴계 선생의 존령(尊靈)께
공경히 고하나이다.





오직 존령께서는 / 唯靈 유령
 이락을 거슬러 올라가 / 遡波伊洛 소파이락
 수사의 연원을 찾으셨고 / 窮源洙泗 궁원수사
 도가 높고 덕이 숭고하여 / 道尊德崇 도존덕승
 세운 바가 우뚝하셨지요 / 所立卓爾 소립탁이

우리나라 천년의 역사에서 / 三韓千載 삼한천재
 유학이 여기에 있었고 / 吾道在是 오도재시
 평소의 행실을 회상하면 / 緬惟平日 면유평일
 의리에 따라 진퇴를 하였지요 / 進退由義 진퇴유의

품은 뜻이 시대와 어긋난다고 / 志與時違 지여시위
 뭐라고 탄식하셨던가요 / 云何吁矣 운하우의

[중략]

서가에 가득 찬 도서들은 / 滿架圖書 만가도서
 한평생의 생활이었고 / 百年計活 백년계활
 청풍과 명월은 끝이 없어 / 風月無邊 풍월무변
 뜰의 풀은 질푸르러갔지요 / 庭草濃綠 정초농녹

이곳에서 오래오래 사시면 / 謂享遐壽 위향하수
 영원히 귀의하리라 생각했지만 / 永爲依歸 영위의귀
 어쩌다 하나의 질병으로 / 云胡一疾 운호일질
 이 세상과 영원히 작별하십니까 / 與世長辭 여세장사



세월이 유수처럼 빨리 흘러 / 日月易流 일월역류
 의형이 점점 아득해져 갑니다 / 儀刑漸邈 의형점막



소자는 선생님을 모시고 / 小子摠衣 소자구의
 일찍이 친히 가르침을 받았는데 / 夙承親炙 숙승친자
 그 은혜는 공자와 같았기에 / 恩同尼父 은동니부
 예의가 자공에게 부끄럽습니다 / 禮愧端木 레괴단목




애오라지 변변치 못한 제수를 올리려 / 聊奠菲薄 료전비박
 눈물이 샘처럼 쏟아지는데 / 淚落如泉 누낙여천
 분명한 혼령이 계신다면 / 不昧者存 불매자존
 부디 오시어 흠향하소서 / 庶紆格焉 서우격언
 아아, 슬프고 슬프도다 / 嗚呼哀哉 오호애재



그 후, 정탁은 선조 5년 나이 47세부터
선조 10년 강원도 관찰사로 나갈 때까지
이조 좌랑, 동부승지, 도승지, 예문관 직제학,
대사성, 예조 참의를 역임하였습니다.

정탁은 52세에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마땅히
어질고 의로워야 하는 법,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생각을 지녀야 한다.




정사(政事)는
너그러움과 용서를
송상하고 백성들을
잘 어루만지고
보살펴야 하며

형벌은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명심
하겠습니다!!

명심하여
받겠습니다.



정탁은 죄수들을 재심문하여 도내의 적체된 죄수들을 순서대로 형벌을 감량해 주었습니다.

관찰사님 상에는
젓가락이 없지
않은가!!

어뭣! 죽을죄를
지었사옵니다.
사또.

되었네. 이런 실수를 벌로써
다스림은 가혹한 처사일세.



정탁은 아랫사람들의 실수는 벌하지 않고 관대하게 다스렸습니다.

어느 관아.



으음,
참으로 귀하신
분입니다.



이방! 마을마다
연락하여 서생들을
모으도록 하게.
관찰사 영감의 명일세.

알겠습니다.
사또.



이처럼 정탁은 각 고을을 순방하면서 그곳
선비들을 모아 학문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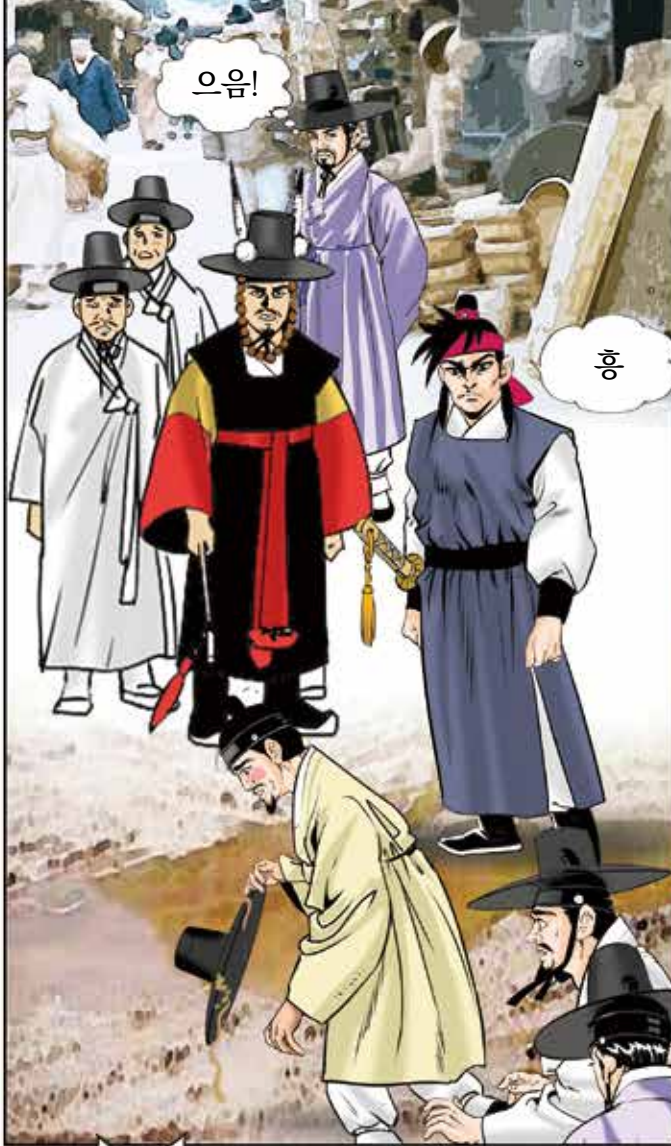


어느 날, 정탁은 평해(平海) 군수와 함께 마을 장터를 돌아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와글

와글





으음!

흥



이 고을 군수가 무인(武人) 출신이라서 선비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푹!

平海官衙



열이요!!!

으음...

푹!

아악!

너는 이 고을 백성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선비의 의관을 더럽히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도리어 호통을 쳤다!!

인의(仁義)로서 백성을 다스리라
했거늘 군수를 호위하는 관졸로서
백성을 업신여겼다!

특히 선비들에
대해서는 더욱
존중해야 할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정탁은 관찰사로 근무하는 동안, 고을 수령들에게 내세운 공약 들을 몸소 실천하며 본이 되었습니다.

기묘년(1579, 선조12) 봄.



다시 조정으로 들어간 정탁은 54세에 도승지(都承旨), 56세에 대사헌(大司憲)을 역임하고 겨울에 이조참판에 제수되었습니다.



임오년(1582, 선조15).



올해는 그동안 미뤄오던
흠경각을 수리할 것입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세요.





전하!
이조참판 정탁이
적임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주역을 통달하여 천지의
이치를 알며 특히 상수학
(象數學)에 능통하옵니다.



오! 약포가
상수학까지
통달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정탁은 그해 흠경각(欽敬閣)을 수리하는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주) 흠경각(欽敬閣) : 천문시계인 옥루(玉漏)를 설
치하였던 조선 시대의 건물로, 경복궁(景福宮) 안에
있다. 흠경각 안에 설치되어 있는 옥루는 일종의
자동 물시계로 1438년(세종20) 장영실(蔣英實)이
만들었다.



그 후, 특명(特命)으로 자헌대부(資憲大夫)
에 승진하고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제수되었습니다.

정탁은 선조의 사명을 받들고 북경에 특사로 가게 됩니다.



조선의 특사 정탁이
대국의 황제를
알현하옵니다!



추위에 먼 길
오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겠소이다.

황제의 용안을 뵈
생각에 추위도 느끼
지 못하고 단결음에
왔습니다.



핫하하!
조선의 왕께서
그대를 특사로
보낸 이유를
알겠소.





정탁 선생이 머무는 동안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라!

존명!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폐하!!



황제 폐하께서 흡족해하셨으니 양국의 관계는 더욱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예조 상서만 믿겠습니다.





저분은 장안에서도 유명한 도인입니다.



공은 인품으로 볼 때 도인의 예언대로 될 것입니다.



허어~
과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계미년(1583, 선조16) 봄에 북경에서 돌아와 선조를 알현하였습니다.





허허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공에 대한 칭송이 바다 건너
이곳까지 들리더이다.

모두가 전하의
은덕입니다.

그해 정탁은 공조판서에 제수 되었습니다.





주상께서 휴가 청원을 들어주셨소.

어머. 정말이십니까? 대감.



정부인께서는 속고만 사셨습니까?

정부인이라 하셨습니까?



그렇소. 이제 판서의 부인이 아니십니까?



대감과 30년을 넘게 살다 보니 그런 칭호도 얻게 되네요.

허~ 정승 자리에 올라 정경부인이 되시면 영영 소리 내어 올겠습니다. 부인.



모처럼 휴가를 얻어 고향을 찾았습니다.



성묘를 하고 집안 어른들도 뵈었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도
고향의 향기는
여전하구나.



마을 청년들과 사냥도 즐겼습니다.

그쪽으로
간다!!

와아~~~

와~

대감! 제 술 한잔
받아주시면 광영(光榮)
이겠습니다.

네가 우리 들째 윤목이와
동갑이지?

그래,
한 잔 따르거라.

그렇습니다.

윤목아,
고향 친구들과과도
서신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나누거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대감!
노루 갈비입니다.

오 그래?
고맙구나.



정탁은 훈탁한 조정을 떠나 참으로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한잔 들자!

고향 청년들과
허물없이 어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쿠



윤저가!!
숨을 거두었던
말이나?



그..
그러하옵니다.

웅

병술년(1586, 선조 19) 봄, 정탁의 나이 61세에 큰아들 윤저(允著)를 잃었습니다.



북망산천 머다더니~ 내 집 앞이 북망 일세~

에에~에에에에~ 너와 남자~ 너와 너~~



대감! 제발
미음이라도 줘
주세요.



얼마나 비통하고
아프겠는가!



37세의 늦은 나이에 태어나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아이가 아니었더냐?

정탁은 입술을 깨물며 그 슬픔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무자년(1588, 선조21) 봄. 형조 판서에 제수 되었습니다.



죄인은 들어라!
죄를 자복하였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반으로
감형하겠노라.

약포 대감!
고맙사옵니다.

형조의 수장이 된 정탁은 사건의 본질을 깊이 살펴 인의(仁義)로써 죄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해 10월에 이조 판서로
옮겨 제수됨으로써 정탁은
두 번이나 이조(吏曹)의
장(長)이 되었습니다.

근자에 들어와서 관리들이
분열되어 각기 문호(門戶)를
세우고 서로 쟁탈하는 일들이
많아졌네.

이조를 관장하는
그대들은 조금도
치우침 없이

지극히
공평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야.


잘 알겠사옵니다.



사사로이 찾아오는 것을
배척하고 멀리하여

부정한 행위는
미리 차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
대감.



기축년(1589, 선조22)9월,
정탁의 나이 64세에 병조판서 겸
지경연춘추관사에 제수된 후 고향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주막을
찾았습니다.



털썩

어르신, 막걸리도
한잔 올릴까요?



되었네.



♪



물렀거라~



남도 병마절도사께서
들어가신다.

나으리~
어서 오십시오,
호호호호

남~

남~

밤이 깊어져 가니
주막에서 자고 가야겠네.
방 하나 내주게.



산골의 작은 주막이라
손님을 모시는 방이
하나밖에 없사운데
손님이 계십니다요~



손님?

이걸
어찌나~

이 병마사가
저 노인과 함께 자라?



저분은 늙은이인데 밖으로
내쳤다가 산짐승이 나타나
물어가면 어쩐니까요?





하룻밤만 함께 쓰시지요.

으음...!!



길손은 어디 가는 길이 신가?

이 늙은이는 한양 가는 길입니다.

후루룩~



흠! 먼 길 가는구먼.

개~어~!

주모 잘 먹었네.



나는 북병마사에서 남병마사로 가는 길이네.



아! 병마사 나으리.



길손은 혹시
장기 둘 줄 아는가?

잘 두지는 못합니다만
대강 가는 길은 알지요.



그럼
이렇게 하세.

?



그쪽과 내가
장기를 한판 두어서



그쪽이 이긴다면
방에서 함께 자고
내가 이긴다면..



이긴다면?

그쪽이 나가서
자는 거지.
어떤가?

히히히~
이 늙은이를 방에서
쫓아내려는 거지요?



눈치가 빠르군.



막말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쪽을 방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데
내기를 해서 정당하게 하자는 것이지.



이 늙은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그리하시지요.



장기는
방에서 두세요.



장군 받아라.



어이쿠.
명군 받으십시오.

호~ 제법 장기를 두는군,
하지만 나를 당하지는
못할 거야.

장군 받아라!

흠~

아이쿠, 남병사 나리는
고수(高手)시군요.
명군 받으십시오.

흐음~

♪

탁

남도 병마절도사
장군 받아라!!

정헌대부
장 받으시오!!

탁

의

탕



정헌대부라고?



남병사 나리.
장 받지 않고 왜
그리 놀라십니까?

저~ 호, 혹시
약포 대감
아니십니까?



허허허, 남들이
그렇게 부르더이다.
장군!



대...대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눈이 피어서

병조판서 대감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허허허,
그럴 수도 있지요,



허나 나라의 녹을 먹는 높은 분이
권력을 무기 삼아 백성들을 무시하고
민폐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대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권력을 무기 삼아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밤이 깊었으니
잠자리에 듭시다.

대감,
이 아랫목으로
오시지요.

해안 마을에
왜구들이 얼씬도
못 하게 잘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병판 대감!

역시 약포 대감다우십니다.
대감의 충고는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할 것입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어느 날, 일본 사신이 와서 조정에서는 답례로 사신을 보내는 일을 논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감! 저리도 정중하게 사신까지 보낸 일본이 설마 판마음을 품겠습니까?



설마!

그러나... 불과 3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정탁의 선견지명에 감복하게 됩니다.

휘이이잉~~

그해 겨울, 정탁은 특별히 송정대부(崇政大夫)로 품계를 올려 임시 우의정 직함을 가지고 명나라 북경에 갔습니다.

이때 아들 윤목(允穆)도 함께했습니다.





대국(大國)의 문물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너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야.

예 아버님.

휘이익



다음 해인 경인년(1590, 선조 23) 4월 그믐에
사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대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간교한 자들이 대감을 모함하여
탄핵을 논한 일이 있었사옵니다.

히히히~ 저런~
성공했다면 고향에
돌아가 편히 쉴 기회가
생길 뻔하였군요.

하하하

러러러러

그 후, 정탁은 예조 판서를 역임하고 신묘년(1591, 선조24)에 우찬성 겸 지경연춘추관사에 제수되었습니다.

짐은 전라좌수영
수군절도사로 진도군수
이순신을 제수하려 하오.

전하!
부제학 김성일이
아뢰옵니다.

이순신은 전하의
은혜를 입어 진도군수를
역임하였사오나 해군을
지휘한 경험이 없사온데

정3품 당상관인
절충장군(折衝將軍)에 봉함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으음!



전하! 우찬성 정탁이 아뢰옵니다.
이순신은 본시 무관 출신 장수로서
전라좌수영 수군절도사로는
그만한 인물이 없사옵니다.



전하! 우찬성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영의정 류성룡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순신은 여진족과의 전투 시에
북병사 이일의 명을 거역하여
백의종군한 자로서 상사에
불손하기 그지없는 자이옵니다.

그 사건은
이일의 모함임이
밝혀졌소이다!

그리고 이순신은
백의종군하며 여진족을
크게 물리쳐 명예를
회복하였으니 자격이 없다
할 수는 없소이다.



으음!

선조는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탁과 류성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순신!

임진왜란으로 절망하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게 될 성웅(聖雄) 이순신은
이렇게 류성룡의 천거와 정탁의 도움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탕~

탕탕~



이게 바다에
들까?



바다로
끌어내라~



와아~

만세~!!

거북선이
바다에 뗏다~
아~!!



와아~



이제 되었다!!

1592년 4월 이렇게... 전라좌수영 수군절도사 이순신의 거북선은 임진왜란 발발을 앞두고 극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년 4월 13일 (선조25년)

3년 전, 정탁이 예견했고 이순신이 예상했던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공격하라!!

부산진을
함락시켜라~!!



무려 20여만 명에 이르는 왜군은 7백여 척의 전함에 나누어 타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진을 지키던 조선 병사들은 겨우 1천여 명에 불과했으니 그들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조선군은 추풍낙엽처럼 왜군의 총칼
앞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부산진성을 함락한 왜군은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진격합니다.



승전보를 기다리던 조정은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왜적이 문경을 지나 천안에 이르자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도순변사 신립을 보내
순변사 이일 장군을
지원하도록 하고



적들이 더 이상
진격할 수 없도록 하라!!

그러나 20만 대군을 상륙시켜
단숨에 한양을 점령하려는 왜적을
오합지졸로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 왜구의 진격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위를 굴러
진격로를
막아라!

조정에 들려오는 소식은 패전!
패전 소식뿐이었습니다.



전하! 적들이 수원성을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북상 중입니다!!



전하! 황공하옵지만
옥체를保重(保重)하셔야
하옵니다.



왜구가 궁으로
들이닥치기 전에 도성을
떠나 잠시 피하시옵소서!

왜적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선조 임금은 도성을 떠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왜적이 부산포에 상륙한 지 딱 17일 만인 기미일(30일)에 왕이 궁을 비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신이 지키는
전라좌수영은 견고했습니다.

광~

과광~

왜적선은 한 척도
통과시키지 마라!!

오! 드디어
승전보가 들어왔구나.

전하!!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옥포에 침략했던 왜적을
공격하여 26척을 침몰
시켰다고 하옵니다!

그러나 5월에 신립(申唼)장군이 패하며
죽고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져 적들은
대동강까지 밀어닥쳤습니다.

전하!
왜구들이 대동강까지
진격하였다고 하옵니다.

옥체를
보증하옵소서!

영변부(寧邊府)
로 가자!!

*주) 영변부: 의주와 평양 사이에 있는 영변 지역을 관리하던 관청으로 고려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다.

싸

아

아

아~

전하! 떠나지 마시고
평양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평양성마저 버리고
떠나신다면 우리는
누굴 믿고 왜구들과
싸운단 말입니까!!

와글

와글

총력을 다해
대동강 전선을 사수하고
본부를 지켜야 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싸아아~

전하! 평양성마저 버리
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겁쟁이 선조는 정탁의 말을
외면하고 영변부로 향했습니다.

신축일(13일)에 영변부에 도착한
선조 임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짐의 행동은
백성에게 할
도리가 아니야.






조정을 둘로 나누어
한쪽을 광해에게 맡겨
정사를 돌보도록
하겠소.




조정을 분조(分朝)
하신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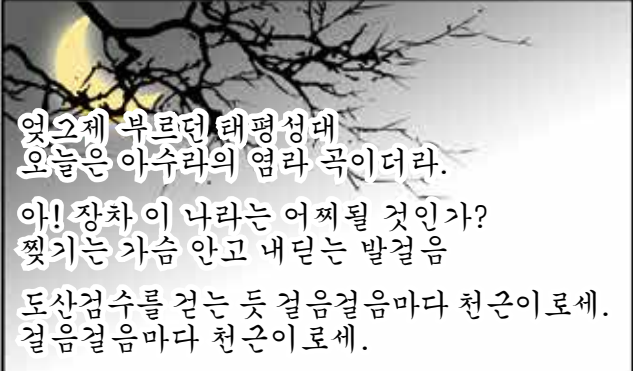
천풍 무너져 구름장
먹장처럼 어둡구나.

부서진 하늘 빗줄기
하늘나라 눈물인가

성은 무너지고 잿빛 연기
가득하고 울부짖는 비명



아,
장차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옛으제 부르던 태평성대
오늘은 아수라의 염라 곡이더라.

아! 장차 이 나라는 어찌 될 것인가?
찢기는 가슴 안고 내딛는 발걸음

도상검수를 걷는 듯 걸음걸음마다 천근이로세.
걸음걸음마다 천근이로세.

근심이 가득 찬 정탁에게
류성룡이 다가왔습니다.



대감,



대감께서 저하(광해군)를 모시고
분조를 이끌게 되어 안심이 됩니다.



지금 저하를 보위할 사람은
대감밖에 없습니다.
대감의 인망이라면 동궁
(광해군)을 모시고
무너져 가는 이 나라를



안으로부터 굳건히
다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하의 분조에 얼마나
권한을 주시느냐가
관건이긴 하지만 그나마
백성들은 위안이 될
겁니다.

임인일(14일). 대가(선조)는 의주로 향하였고 정탁은 분조(광해군)를 모시고 영변부를 떠나
강계로 향했으나 왜적들이 이미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춘천으로 길을 바꿨습니다.



굉~

과과굉~

29일 이순신이 사천 선착장에 있던 왜적을 공격하여 적선 12척을 쳐부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 역시
이순신입니다.
대감!

쌩 아~

7월 8일과 9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학익진을 펼친 이순신이 적 함대를 모조리 괴멸시켰다는 엄청난 승전보가 전해졌습니다.

쌩

이순신 장군이
조선에 유일한
희망이오.

아

아~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戍樓)에 홀로 앉아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一聲胡笳)는 남의 애를 끊나니.



임금께서 멀리 계시니 수시로
장계도 올려야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구나.

짜~
아~

정탁은 선조 임금께 수시로 보고서를 올리는 일이
힘들었지만,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전하!



인재를 거두어 쓰는 일은 오직 벼슬과 상훈에 달려 있으나 (중략)

임금이 계시는 행재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에 왕복하는 사이에 자칫하면 일의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될까 봐 모두가 걱정스럽습니다.



으음!

그러므로 감히 형편에 맞게 보충해야 할 관원을 차출하여 한편으론 일을 맡기고 한편으론 일의 결과를 아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앞으로 적을 토벌하거나 죄를 다스리는 등의 책임을 분조(分朝)에 위임할 것이며,



벼슬을 내리고 상을 주는 것도 모두 형편에 맞게 분조에서 임의 처리하도록 하라.

정탁은 그 후로도 따르던 재상들과 함께 날마다 빈청(賓廳)에 출사하여 업무들을 처리하고 빠짐없이 선조께 보고하였습니다.



※ 빈청(賓廳) : 正二品이상 고위관료 회의실

여러 고을의 수령들이 어떤 자는 싸우다가 죽고, 어떤 자는 달아나거나 죽어서 백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살인과 노략질이 횡행(橫行)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 수습해야 할까요?



저하! 박춘남(朴春男)을 임시로 차출하여 춘천 부사로 삼고, 성영(成泳)을 여주 목사로 삼으시옵소서. 또한, 의병장 김천일(金千鎰)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승진시키시고, 변수(邊瑈)는 군사를 잃어버려 군율을 실추시켰기 때문에 종군(從軍)케 하여 전과를 올리게 함이 좋을 듯합니다.



경들의 의견은 어떠하오.



그리하옵소서.
저하!



허허허~ 약포공이
세자(광해군)를 보필하며
분조 일을 모두 지혜롭게 처리하니
짐의 마음이 한결 가볍구나!



정탁은 을유일(28일)에 동궁을 모시고 밤에
풍벽현(風壁峴)을 넘어 성천(成川)으로
향했습니다.



저하!
성천은 위험하옵니다.
왜적이 동쪽 길을 막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으음!

아! 하늘이 만약
우리나라에 복을 내려
주셨다면 이런 불행이
없었을 것이지만,




설령 불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략만으로는
모면할 수 없는 일이다.



정탁은 12년 전 울곡 이이가 병조판서로 있을 때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월 말에 이르러서야 육전에서 홍의장군 곽재우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처음으로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흥계남이 안성에서 승리했다는 소식도 보고되었습니다.

이순신장군은 부산포 해전을 통해 크고 작은 적선 120여 척을 쳐부숴했습니다.



왜적선을 모두 수장시켜라!

임진년 11월 기묘일(23일)
임시 숙소에 아들 윤목(允穆)이
찾아왔습니다.





네. 백성들이 왜적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날마다 관군(官軍)이 오기를 바라며 군기(軍器)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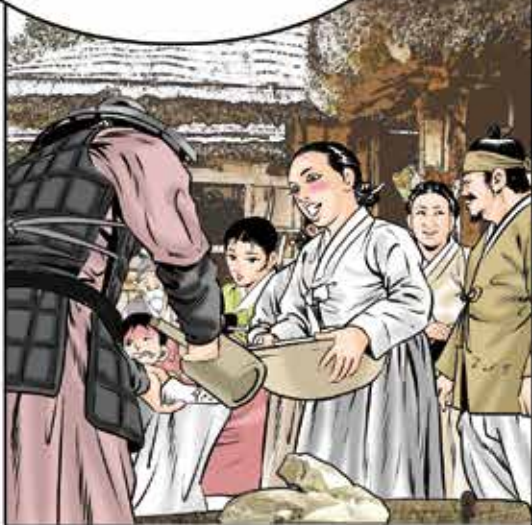


임금님께 장계를 올려야겠다.



전하! 경성의 소식은 사실인 듯하옵니다.

이러한 때를 놓치고 해가 바뀌면 민심이 적에게 길이 들어서 다시는 회복할 희망이 없습니다.



청하건대 중신(重臣)을 파견하여 왜적과 싸우는 군병(軍兵)과 의병들을 독려(督勵)하도록 하소서.

그들을 통솔하여 경성을
향하도록 고무시켜 내외
(內外)가 합세한다면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경성을 침공하여 뒤흔들어서 왜군의
세력을 분산시킨다면 또한 평양을 공격하는
데도 일조(一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포공, 공의 의견대로
중신을 파견하여 군병과
의병들을 독려토록 하겠소.

계사년(1593, 선조 26) 1월 2일.
정탁은 세자의 명을 받들어 안주(安州)에 있는 이여송(李如松) 제독(提督)의 군영에 나아갔습니다.



명나라와 교류는
우리 조선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여송 제독과 아비가 협상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보기만 해도 느끼는 바가 클 것이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누추한 야전으로 오시게 해서 송구합니다.

우리 조선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핫하하! 염려 마시오. 곧 평양성을 되찾아 그대의 임금을 기쁘게 해드리리다.

정략은 세자를 보필하면서도 명나라와 외교 관계를 맡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고맙소이다. 이여송 제독!

이여송은 약속대로 평양성을 되찾았습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과 수군이 연전연승으로 사기가 충천했으며,





삼도수군통제사로
이순신을 임명하노니
속히 파발마를 띄우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1593년 8월 1일, 선조는 해군을 통제하고
지휘할 삼도수군통제사 제도를 만들어
이순신을 통제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순신은
어명을 받으시오!



파그닥~

파그닥~

삼도수군통제사에 오른 이순신은 한산도로 진영을 옮기고 견내량에 방어선을 설정하여 왜적과
대치하면서 백성을 모아 소금을 굽고 농사를 지으며 곡식을 비축하여 장기전에 대비했습니다.





선조는 한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몇 번을 주저하다가 10월 1일 도성으로 돌아왔지만 불타버린 궁을 보며 탄식을 합니다.



아! 이게 모두 과인이 부덕한 탓이로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정탁은 11월, 선조를 알현하고 《용만문견록(龍灣聞見錄)》을 진상하였습니다.



*주) 용만문견록(龍灣聞見錄)은 왜란 당시 의주에서 명과의 외교관계를 맡아 명나라 장수의 사적과 언어 중에 서계(書啓)로 보고한 것과 국정에 참고 할만한 것을 따로 엮어 임금에게 바친 책.

※ 용만(龍灣) : 평안북도 의주(義州)



갑오년(1594, 선조27) 봄,
정탁은 7월까지 세자를 모시고 전주(全州) · 공주(公州) · 홍주(洪州) 3주를 왕래하였다.



저하!
먹을 것을 주십시오.
죽을 지경입니다.

나으리~
왜놈들에게 모두
강탈당해 파종할
법씨도 없습니다요.



저하!
살려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저하!

저하~ 끼니를 때우지 못해 굶주린 백성들이
경내에 천여 명이 넘는다고 하옵니다.

약포공,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장을 열어 이들을
구휼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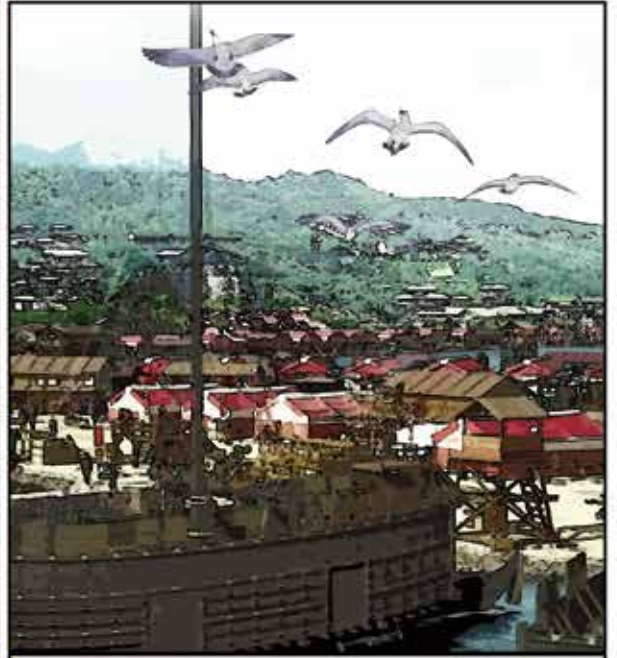
으음,
그렇게라도
해야겠지요.

정탁은 장을 열어 굶주린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밥이냐?

새치기
말아웁!

왜적과 명나라는 강화 회담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회담이 길어지면서 왜적은 남해안 일대에 총집결하여 왜성을 쌓는 등 수비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장군,
출정 명령을
내리십시오.

조정은 이순신에게 적극적인 공격을 강요 했지만, 이순신은 일본의 유인작전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견내량 전선을 사수하면서 왜군을 공격하는데 신중을 기했습니다.



지금은 출정하면
백전백패이니
경거망동을 삼가라!

그러자 조정에서는 반대 세력을 중심으로 이순신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이순신을
파직하셔야 하옵니다.

으음!



1595 을미년 2월 (선조28).



정탁이 우의정에 제수되었으나, 병 때문에 임금을 곧바로 뵈지 못하다가 15일야 비로소 뵈고 다섯 번이나 사양했으나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소신은 우의정을 맡을 자격이 없사오니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약포공이 자격이 없다고 하면 정승을 맡을 신하가 하늘 아래 누가 있겠습니까?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모처럼 평화가 찾아온 조정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하! 지금 섭정이라 하셨사옵니까?

저하께 섭정을 말씀하셨사옵니까?

영돈녕 이산해(李山海)

영의정 류성룡(柳成龍)

좌의정 김응남(金應南)

판중추 윤두수(尹斗壽)



전하! 저하게 섭정하도록
하심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전하!
거두어 주시옵소서.



과인은 이미
결심한 일이니
물러들 가세요.



뭐라!
전하께서
섭정을?



그렇습니다.
우상께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으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정탁은 병으로 대궐에 나아가지 못하고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전하께서 틈을 내어
옥체를 보양(保養)하시는
것에 어찌 반대가 있을 수
있겠사옵니까?

하오나 최근 왜적들의 정황이
진실로 예측하기 어렵사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수군(水軍)들이
조금이나마 재정비하였으니,

만약 수륙(水陸) 양면으로 포위망을
좁혀 보름 정도만 버틴다면,
왜적은 떨나무를 구하고 물 낚는 일이
단절되고 안으로는 식량이 고갈되어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는 이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전하의
교지가 전파된다면 나라의 인심이
요동칠 뿐만 아니라 장수와 군사들이
맥이 풀려 철군할 것이오니,
하교를 거두어 주옵소서!

으음!

정탁의 예견은 적중하였습니다.

왜적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퇴각한 것입니다.

한편, 정탁은 1596년 2월,
의병장 김덕령이 모함을 받아
처형의 위기에 빠졌을 때는 목숨을
구해주었으며, 선조 임금으로부터
말 한 필을 하사받게 하였습니다.

피골~

피골~

그로부터 1년 후...



1597년 1월 정유년,
전쟁은 다시 시작됩니다.

공격하라!!!



왜군의 정유재란 전략은 달랐습니다.



요시라!
그... 그게
정말이요?

사실이니 임금을
만나게 해 주시오.

먼저 이순신을 간계로 속여
제거하고 임진왜란 때
정복하지 못한 곡창지대
전라도를 먼저 점령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번에는
곡창지대
전라도를 친다!!

조선인을 죽인
뒤에는 코를 베오라!!



이순신을 죽이는 간계는 요시라를 첩자로 보내 선조와 조정을 속이는 전략이었습니다.



으음!

하오니 전하!
조선 수군으로 선제공격을
한다면 적은 한 번의 공격으로
괴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 절호의
기회이옵니다.




이순신에게
당장 출정하도록
어명을 내리시옵소서!




이순신에게 파발마를 띄우래!
삼도 수군을 이끌고 나가
왜적을 괴멸토록 하라!






하지만 이순신은 우기(雨期)인데다가 바다의 파도가 심하고
워낙 험해 일본의 복병이 기습하면 전멸을 당할 수도 있기에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썩 아 아~




이에 조정은 거듭 출정을
명했지만, 이순신은 뻔한
패배의 길로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뭐라?
이순신이 계속
출정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냐!!

그렇사옵습니다.
이제 왜적함대를 격파할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과인의 어명을 거역한
이순신을 파직하고
의금부로 압송하라!!

선조는 이순신이 명령을 어기고 왜군 함대를 격파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군님.

으흠
우리 장군님이
왜 끌려가는
것입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요.

멍멍~

거기에 원군의 모함까지 이어져 이순신은 파직당하고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썩!

이순신이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대감 이 일을
어찌합니까?

요시라의
이간질에 속으신
겁니다.





영상(류성룡)대감,
그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기에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순신이 전하의 명을
거역한 것은 사실이거
때문입니다.

그게 왜놈들이 파놓은
함정이란 말입니다.


그 함정에 간신배들이
맞장구를 친 것입니다.



함정일지언정 주상의
어명은 지엄한 것입니다.


허어~ 이제
큰일이 아닙니까?






왜놈들은 이순신이
압송되자 곧바로 곡창지대
호남과 호서지방을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구명을
해야지요.

원균으로는 놈들을
해상에서 막을 수
없을 터인데....



이순신을 살려내어
다시 삼도수군통제사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이순신의 죄목은 네 가지였습니다.

으..으..음~

첫째, 조정을
속였으니 임금을
업신여긴 죄요,

둘째, 적을 쫓아 공격하지
않아 나라를 등진 죄요.

셋째, 남의 공을 가로채고
남을 모함한 죄요,

넷째, 임금이 불러도 오지
않았으니 한없이 방자한 죄!

으..으..




아아악~

아아악~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아아악~




왜적은 제가 죽기를
소원하며 호남지방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저를 전장으로 보내주옵소서!
왜적을 모조리 격퇴한 후
이 몸을 벌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신이 죽을 때가
아니옵니다. 전하!!



그가 왜 죄인이
되는 것이옵니까?



수군들을 바다에 수장하고
우리의 전함들을 파괴하려는
왜적의 간계에 속지 않았다는
것이 역적이란 말이옵니까?

나라의 어려움을 도와
녹봉은 고사하고 군사들의
식량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처지에도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의
충성을 불러일으킨 장수가
이순신입니다.



왜적에 대항하는 거북선을
수주하여 전쟁마다 승리한
장군이 이순신 이온데 왜
충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시고 간신들의 간계에
넘어가신 것이옵니까?



전하!
누가 비겁한 장수요,
누가 방자한 장수요,
누가 대역죄를 꾀했다는
것이옵니까?




대감,
밤이 깊었습니다.
들어가지지요.


감기가 심해질까
염려됩니다.




부인!




이순신을 구명하려
한다거나 그의 공적을
거론한자는 이순신과
같은 역적으로 간주
하신다는 어명이
내려졌소.





하지만 이순신은 이 나라를
위해서도 살려야 합니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순신이 필요합니다.




한데, 그를 구명하려 해도
당신과 아이들이 역적으로
몰릴까 걱정이 됩니다.




대감! 나라를 구하려다가
역적이 된다면 후대에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저는 대감을 따라
죽기를 결심했습니다.



지체 마시고
이순신을 구명하십시오.
상감께 상소문을 올리십시오!



고맙소, 부인!



우리 자식들도
기꺼이 대감을 따라
죽을 것입니다.

정탁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순신을 구하기 위한
상소문 논구이순신차
(이하 친구차)를
썼습니다.



몇 번을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친구차를 한자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주) 친구차(伸救箭)는 선조 임금께 이순신을 구명하기 위해 쓴 글이다. 총 1,298글자이다. 만화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필자가 우리 글로 쉽게 하여 포인트만을 전하는 것임을 밝히니, 원문과 해석본은 김미경이 쓴 <약포 정탁 스토리텔링 북> 191P 김규탁 번역(논구이순신차)를 참고 바란다.



우의정 정탁 옆드려
아뢰옵니다.

임진년에 왜적의 함대가
우리 조선의 바다를 덮어
적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그 날에



이순신은 원군과 더불어
적의 예봉(銳鋒)을 꺾음으로써
나라 안 민심이 겨우 얼마쯤 생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굉

과 굉!

그의 공로는 가히 적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순신은 바다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적을 괴멸하는 장수의 재질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은 결코 쉽게 얻지 못할뿐더러, 백성들에게는 전쟁의 불안을 떨쳐 주고 왜적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만세!!

만세~

만일 성상(임금을 높이는 말)께서 죄명이 엄중하다는 이유로 끝내 큰 벌을 내리신다면 공이 있는 자도 스스로 더 공을 쌓지 않을 것이요,



만세

능력이 있는 자도 스스로 더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일개 이순신의 목숨은
실로 아깝지 않으나,
이 어려운 나라의
형편을 생각하면,



가볍지 않은 만큼
어찌 걱정할만한 증대한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이순신이 사형을 받을 증죄를 지었다는
성상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이순신 또한 성상의 어명이 지극히 엄중하고
형벌 또한 무서워 생명을 보전할 가망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은혜로운하명으로써
문초를 덜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싸울 기회를 주시면,
성상의 은혜를 천지 부모와 같이 받들어,
저 왜적을 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신의 어리석은 말이
나랏일에 천분의 일이라도
보탬이 있다면 신은 만 번
죽어도 좋습니다.



콜록
콜록

대...대감!!

신이, 지독한 감기에 걸려
이미 2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처럼 낫지
않아서 직접 대궐에
나아가지 못하고
삼가 한자를 빌려
올리옵니다.



성상께 경솔함을 범해
매우 송구하오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으음...
이순신!



약포가 <이순신육사의>
로 내었던 의견이
옳을 것이야!



죽이라도
좀...



생각이 없습니다.



대감...,



이순신의 소행은
죽여 마땅하나,
그의 지난 공적을
감안하여

백의종군을 명하노니
즉시 이순신을
석방토록 하라!!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순신의 구명을 위한
정탁의 의견은 이순신을
살려냈고,

이렇게...



전하!



이순신은 또다시 왜적에 의해
무너지려던 조선을 구해내게 됩니다.




대역죄인 이순신은 들으라!
지난날 왜적을 물리친 죄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다시 한 번 왜적과 싸워
공을 세울 기회를 줄 것이니
과인을 위해 싸우라!




전해! 신 이순신은 반드시
저 왜적의 무리를 바다에
수장시킬 것이옵니다.




장군! 부디 건강을
되찾아 이 나라를
구해내십시오.




제가 대감을 빌
면목이 없습니다.




허허허~
영상(류성룡)이
계시니 든든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번에 차(금)를 올려 제가
역적으로 몰렸다면
영상께서 설마 보고만
계셨겠습니까?



저를 구명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셨겠지요.
허허허~

그러나..이순신이 권을 밑에서 백의종군 하는 동안
원군이 이끄는 조선 해군은 크게 패하여 거북선은
물론 판옥선과 병사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과 광~

광~



당황한 선조는
백의종군 중인 이순신을
서둘러 삼도수군통제사로
다시 임명합니다.

이순신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8월 29일 통제영을 진도 벽파진으로 옮겼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必死即生, 必生即死!)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며,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모두 나라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죽는다는 각오로
나아가 싸우자!

나가
싸우자!

나가
싸우자!



와~

와~ 아



전하! 명나라군이 다시
출병하였으니 수륙으로
병진하여 왜적을 협공하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좋은 계책이오.
병조판서는 속히 계책을
단단히 세워 왜적을
물리치도록 하라!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전하!



1597년 9월 16일 명량 대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신은 새로 합류한 1척을 포함해 13척의 함대를 재정비한 후



‘울돌목’이라는 급류가 빠르고 밀물과 썰물 때 물의 교차가 빠른 곳으로 적들을 유인하여 133척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명량 대첩입니다.(명량대첩비에는 500척으로 기록되어있음)


전하! 이순신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승전보이옵니다.

오! 이순신이 대승을 거두었다단 말이냐?


이 해전으로 왜군은 엄청난 타격을 입음으로써 정유재란의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만약 정략이 목숨을 걸고 선조 임금께 친구차의 내용을 아뢰지 않았다면 조선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이듬해인 1598년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하면서
왜군은 철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왜적의
배는 단 한 척도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출정하라!!

1598년 선조 31년 11월 18일, 일본으로 돌아가려던 왜선 500여척은
노랑해협에서 이순신과 명나라 함대를 맞아 싸웠지만 200여척이 격파
되는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내 죽음을 ..
알리지 말...라.

아!
아버지...

관음포로 달아나는 적들을 추적하던 이순신은 날아온 총탄에 맞아 이렇게 전사합니다.

향년 54세의 이순신은 이렇게 전장에서
산화한 것입니다.



발포하라!

발포하라!

아버지...

정탁은 <우회(寓懷)> 라는 5언 시 한 수를 지어 이순신의 공을 기렸습니다.



큰 집이 기울어지려 하던 날
 大夏將傾日
 전심 하여 한 나무로 지탱시켰지
 專心一木支
 홀로 고생한 것은 못사람이 잘 알고
 獨賢衆人諳
 외로운 충정은 주상께서도 아신다네
 孤忠聖主知
 오랜 우정 때문에 애가 끊어지고
 腸因舊好斷
 새롭게 작별함에 눈물이 하염없네
 淚爲新別滋
 어디쯤 눈서리 덮인 길을
 何處冰霜路
 끝없이 홀로 가고 있을까.
 迢迢獨去遲

지긋지긋했던 7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대감이 용퇴하시니
 부럽습니다.

눈치채셨군요.

1599, 선조32년 10월,
 정탁은 부모님 묘소에 성묘
 하러 갈 것을 허락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벼슬에서 물러나
 여생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대감(윤두수)을 믿고
떠납니다. 전하를 잘 보필해
주십시오.


강녕(康寧)
하십시오.

당파는 다시
시작되었는데
고니와 같은
약포는 떠나시는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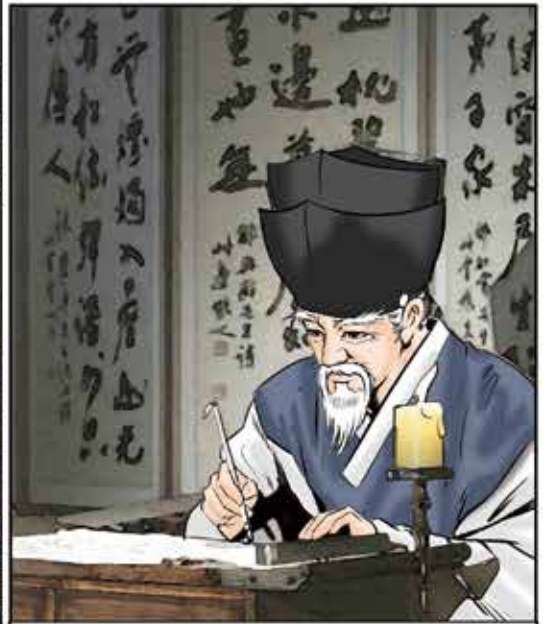


정탁은 10월에 비로소 예천 고향 집에 도착하여 부모님 묘소에 성묘하여 분황(焚黃)하고,
가묘(집안사당)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경자년(1600, 선조33) 2월, 정탁의 나이 75세에
선조는 그를 좌의정에 제수하였습니다.




정탁이 글을 올려 간곡히 사양했으나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다시 소를 올려 간곡히
사양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체직되어 판중추부사
(判中樞府事)에
붙여졌습니다.

성상께서 관용을 베푸시어
좌의정 벼슬에서 물러남을
허락하시고는




곧바로
판중추부사
직에 임명하셔
감읍하옵니다.

하오나 질병이 오래되어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판중추부사직도 사직을
허락해 주시어 죽어서 선친의 무덤
곁에 묻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 임금의 성은을
입고도 보답하지
못하니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정탁은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는 예천으로 낙향하여 고평(고사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의 자손 가운데 내가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을 알고
내 뜻을 이어갈 자가 있다면
유감이 없으련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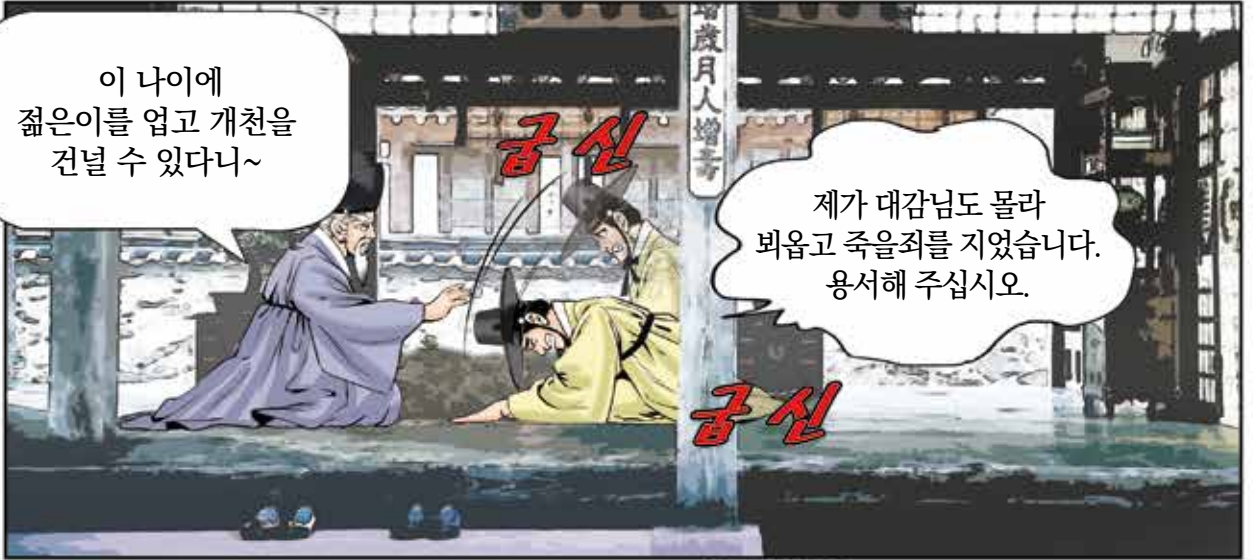


낚시하는 노옹!
나 좀 봅시다.

왜
그러시오?



이 나이에
젊은이를 업고 개천을
건널 수 있다니~



제가 대감님도 몰라
뵈옵고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허허허~
나도 아직은
쓸 만한 게야.

아! 역시
큰 어른이시다.

조선시대 향촌에서는 양반들의 자치활동을 보장받고 하층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향촌규약 (鄕村規約)이라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향촌규약이 유교적 예절을
하층민들에게 가르치고
도덕적 질서를 잡아가기 위한

목적도 있어서 크게 나무랄
것은 없겠으나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들이 있네.

더욱이 왜란으로 피해를진
고평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반과 하층민이 힘을 합한
공동체적인 조직이 필요하네.

대감께서는 양반과
하층민들이 함께하는
동약을 결성하자는
말씀이시군요.



달관자 손흥지



그렇다네. 왜란으로 피해를진
농토를 복구하고 고평들을 개간해
우리 향토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도
힘쓰자는 것이네.



역시
약포 대감다운신
생각이십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짝짝짝

매포 송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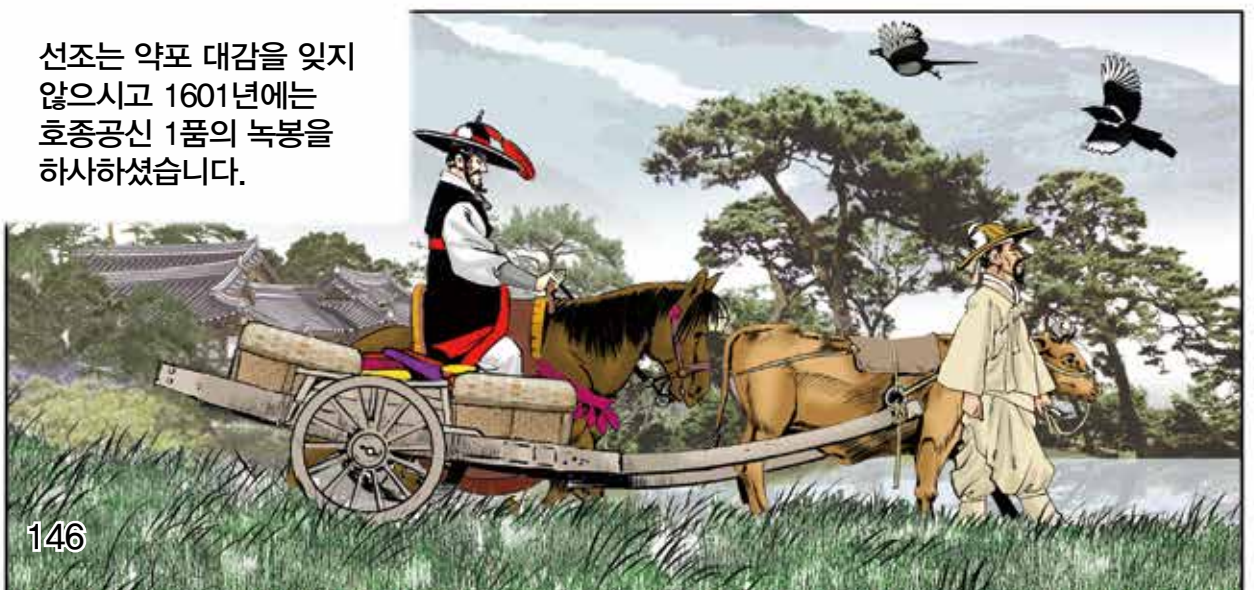
짝짝짝

이처럼 정탁은 기존의 향약을 고쳐 고평동계약문(高坪洞契約文)을 만들어 사회 풍교 확립에 힘썼으며,

고평들을 개척해 향토 주민의 복지 증진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선조는 약포 대감을 잊지
않으시고 1601년에는
호종공신 1품의 녹봉을
하사하셨습니다.



계묘년(1603, 선조36)



우리 윤위가 장수도
찰방(長水道察訪)에
제수 되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찰방도 각 고을과
한양을 잇는 역사(驛舍)의
수장이니 잘 해낼 것입니다.

그래야겠지요.



1604년에는 호성공신
3등의 녹훈과 서원부원군의
관직 호를 내리고 충훈부의
화공(畫工)을 보내
정탁의 모습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녹봉을 지급하고,
관복을 착용하고 어전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봉조하락을 받았습니다.





대감, 세월이 참 빠르지요?
첫날밤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신다고 하셨는데...
대감 나이가 벌써 팔십이 되었습니다.

당신 머리 자르고 가락지
팔아 과거시험 노자 마련해
주던 날이 어제 같은데 팔순
노인이 되었습니다.



키 작다고 놀림 받던 당신이
좌의정까지 올랐으니 상전이
벽해되었다고 해야 하나요?

이름 없는 시골 처자가 훌륭한
서방을 잘 만나 정경부인까지
되었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입니다.



호호호,
역시 당신을
못 당하겠어요

굴곡 많은 한세상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변함없이 내 곁에 있어 주어
고맙소.

저도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을사년(1605, 선조38) 정탁의 나이 80세에
임금은 황감(黃柑) 20매와 봉조하(奉朝賀)의
녹봉(祿俸)을 내려 주시고 청단(靑段) 1필과
책력(冊曆) 1건을 내려 주셨습니다.

부인 자꾸
눈이 감깁니다.

그럼 편히
주무세요.



대감, 아직도
주무십니...?!!

먼저
가셨군요.

그래요.
우리 오래도
살았지요?

정탁은 9월에 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다가 19일에 예천(醴泉) 고평리(高坪里) 집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북망산엔 머다더니~내 집 앞이 북망 일세~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실 날이나 일러 주오~
에에~에에에에~너와 남까~ 너와 너~

임진왜란으로 조정이 분조 되었을 때 동궁(광해군)을 보필하여 백성을 돌봤던 정탁, 이순신 장군이 왜적의 계략에 말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목숨을 내어놓고 친구차를 아뢰어 선조를 감동시켰던 약포 정탁은 이렇게 80의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승지를 내려보내 애도의 뜻을 표하라.
부의도 후하게 내리고 고인을
추모하며 3일 동안 조회도
철폐하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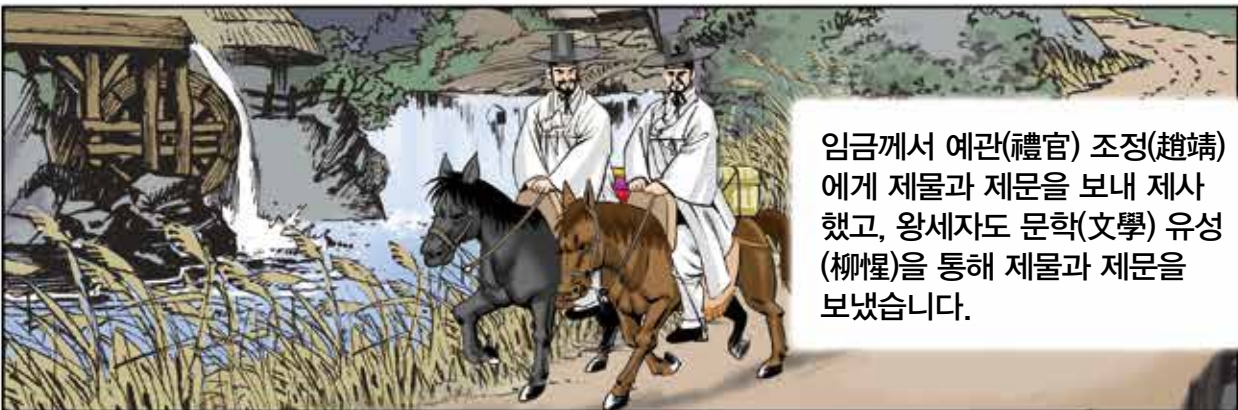
도성의 백성들은 시전을 접고 거리에서 울었습니다.

아이고~

으~흐흐
대감!!



아이고~



임금께서 예관(禮官) 조정(趙靖)에게 제물과 제문을 보내 제사했고, 왕세자도 문학(文學) 유성(柳星)을 통해 제물과 제문을 보냈습니다.



왕세자 광해는 임신왜란 때 자신을 보필하며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공의 죽음을 더욱 슬퍼했습니다.

대감! 왜란 때 저를 지켜주신 공을 잊지 않겠습니다. 전쟁 없는 저세상에서는 평안을 누리세요.



병오년(1606, 선조39) 2월 경신일(21일)에 예천군 호명면 본동 좌측 산 간좌곤향(艮坐坤向)의 터에 장사 지냈습니다.



선조 임금께서 귀후서(歸厚署: 장례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의 관원에게 명하여 치상(治喪)하도록 했고, 유사에게 명하여 장례 물품을 공급하도록 했으며, 또한 승문원(承文院) 관원을 보내 제주(題主)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축년(1613) 광해군 5년 위성 공신(衛聖功臣) 1등에 녹훈되었고,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습니다.



을해년(1635) 인조는 정탁에게 청백하게 절개를 지키고 한결같은 덕을 베풀었다는 뜻이 담긴 정간(貞簡)이라는 시호를 내려 주었습니다.



경진년(1700, 숙종 26년) 사림이 읍호정 동쪽 언덕 소요하던 곳에 서원을 건립하였습니다.

계묘년(1723) 11월에 향현사(鄉賢祠)의 위판을 옮겨 봉안하고, '도정서원(道正書院)'이라 했으며, 이곳에 정탁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춘추로 제향을 받들고 있습니다.



영조32년 병자년(1756) 5대손 옥(玉)이 좌승지(左承旨)로서 제수되었을 때 영조는 정탁의 화상(畫像)을 보고 화상찬(畫像讚)을 지어 상단부분에 쓰도록 하였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